뽑아 읽는 ≪맹자≫ 강독 / 제2강 통일에 대한 비전: "인자무적(仁者無敵)"

○ 曰:「然則王之所大欲可知已, 欲辟土地, 朝秦楚, 莅中國而撫四夷也. 以若所爲求若所欲, 猶緣木而求魚也.」王曰:「若是其甚與?」曰:「殆有甚焉. 緣木求魚, 雖不得魚, 無後災. 以若所爲求若所欲, 盡心力而爲之, 後必有災.」曰:「可得聞與?」曰:「鄒人與楚人戰, 則王以爲孰勝?」曰:「楚人勝.」曰:「然則小固不可以敵大, 寡固不可以敵衆, 弱固不可以敵强. 海內之地方千里者九, 齊集有其一. 以一服八, 何以異於鄒敵楚哉? 蓋亦反其本矣. 今王發政施仁, 使天下仕者皆欲立於王之朝, 耕者皆欲耕於王之野, 商賈皆欲藏於王之市, 行旅皆欲出於王之塗, 天下之欲疾其君者皆欲赴愬於王. 其若是, 孰能禦之?」(≪孟子.梁惠王上≫)

【해석】
맹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왕께서 크게 욕망하시는 바를 알겠습니다. 국토를 늘리고, 진(秦)나라와 초(楚)나라를 무릎 꿇리고, 중국(中國)에 군림하면서 사이(四夷: 사방의 이민족)를 어루만지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와 같은 욕망을 구하는 것은 마치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렇게나 심합니까?"
맹자가 말했다. "훨씬 더 심합니다.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하는 것은, 비록 물고기는 얻지 못하더라도 후환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와 같은 욕망을 구하려고 마음과 힘을 다해 하게 되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십시오."
맹자가 말했다. "약소한 추(鄒)나라가 강대한 초(楚)나라와 싸운다면, 왕께서는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이라 여기십니까?"
왕이 말했다. "초(楚)나라가 승리할 것입니다."
맹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작은 것은 결코 큰 것을 대적할 수 없고, 적은 것은 결코 많은 것을 대적할 수 없으며, 약한 것은 결코 강한 것을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다 안쪽에서 사방 천리인 땅이 아홉 개가 있으며, 제(齊)나라의 영토를 다 합치면 그 아홉 개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9분의 1로 9분의 8을 굴복시키려는 것이 어찌 추(鄒)나라가 초(楚)나라를 대적하는 것과 다르겠습니까? 그 근본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왕께서 인정(仁政)을 베푸시어, 천하의 벼슬하려는 자들로 하여금 왕의 조정에 서고 싶도록 하시고, 농사짓는 자들로 하여금 왕의 들판에서 농사짓고 싶도록 하시고, 장사하는 자들로 하여금 왕의 시장에 재화를 보관하고 싶도록 하시고, 나그네들로 하여금 왕의 길에서 출발하고 싶도록 하신다면, 천하의 제 왕을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왕에게로 달려와 하소연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맹자·양혜왕≫ 중에서)

○ 曰:「無恒産而有恒心者, 惟士爲能. 若民, 則無恒産, 因無恒心. 苟無恒心, 放辟邪侈, 無不爲已. 及陷於罪, 然後從而刑之, 是罔民也. 焉有仁人在位罔民而可爲也? 是故明君制民之産, 必使仰足以事父母, 俯足以畜妻子, 樂歲終身飽, 凶年免於死亡, 然後驅而之善, 故民之從之也輕. 今也制民之産, 仰不足以事父母, 俯不足以畜妻子, 樂歲終身苦, 凶年不免於死亡. 此惟救死而恐不贍, 奚暇治禮義哉? 王欲行之, 則盍反其本矣.」(≪孟子.梁惠王上≫)

【해석】
맹자가 말했다. "지속적인 생산(恒産)이 없어도 지속적인 마음(恒心)을 가지는 자는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경우는 지속적인 생산이 없으면 지속적인 마음이 없는 법이지요. 그런데 지속적인 마음이 없다면 온갖 못된 짓과 부정한 짓을 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며, 죄를 진 뒤에 죄에 따라 형벌을 가한다면 이는 곧 백성을 그물로 쳐서 잡는 것입니다. 어찌 어진 사람이 임금의 지위에 있으면서 백성을 그물로 쳐서 잡는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현명한 임금은 백성의 생산을 마련할 때,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섬길 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부양할 수 있게 하여, 풍년에는 종신토록 배부르게 먹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백성들을 착한 데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백성들이 따르기가 쉬운 법입니다. 지금은 백성들의 생산을 마련하되,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부족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기르기에 부족하며, 풍년에는 종신토록 고생만 하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죽음을 구원하기에도 부족할까 걱정인데, 어느 겨를에 예의를 다루겠습니까? 왕께서 그것을 행하고자 하신다면, 어찌 그 근본으로 돌아오시지 않으십니까?"
(≪맹자·양혜왕상≫ 중에서)

○ 孟子曰:「尊賢使能, 俊傑在位, 則天下之士皆悅, 而願立於其朝矣. 市, 廛而不征, 法而不廛, 則天下之商皆悅, 而願藏於其市矣. 關, 譏而不征, 則天下之旅皆悅, 而願出於其路矣. 耕者, 助而不稅, 則天下之農皆悅, 而願耕於其野矣. 廛, 無夫里之布, 則天下之民皆悅, 而願爲之氓矣. 信能行此五者, 則鄰國之民仰之若父母矣, 率其子弟, 攻其父母, 自生民以來未有能濟者也. 如此, 則無敵於天下. 無敵於天下者, 天吏也. 然而不王者, 未之有也.」(≪孟子.公孫丑上≫)

【해석】
맹자가 말했다. "현자[賢]자를 높이고 능자[能]를 부려서 뛰어난 인재들이 관직에 있다면, 천하의 선비들은 모두 기뻐하며 그런 조정에 서기를 원할 것이다. 시장에서는 자릿세만 걷고 거래세는 걷지 않거나, 불법만 금하고 자릿세도 걷지 않는다면 천하의 상인들이 모두 기뻐하며 그런 시장에 재화를 보관하기를 원할 것이다. 관문에서는 감시만 할 뿐 통행세를 걷지 않는다면 천하의 나그네들이 모두 기뻐하며 그런 길에서 출발하기를 원할 것이다. 농사짓는 자들에게는 공전(公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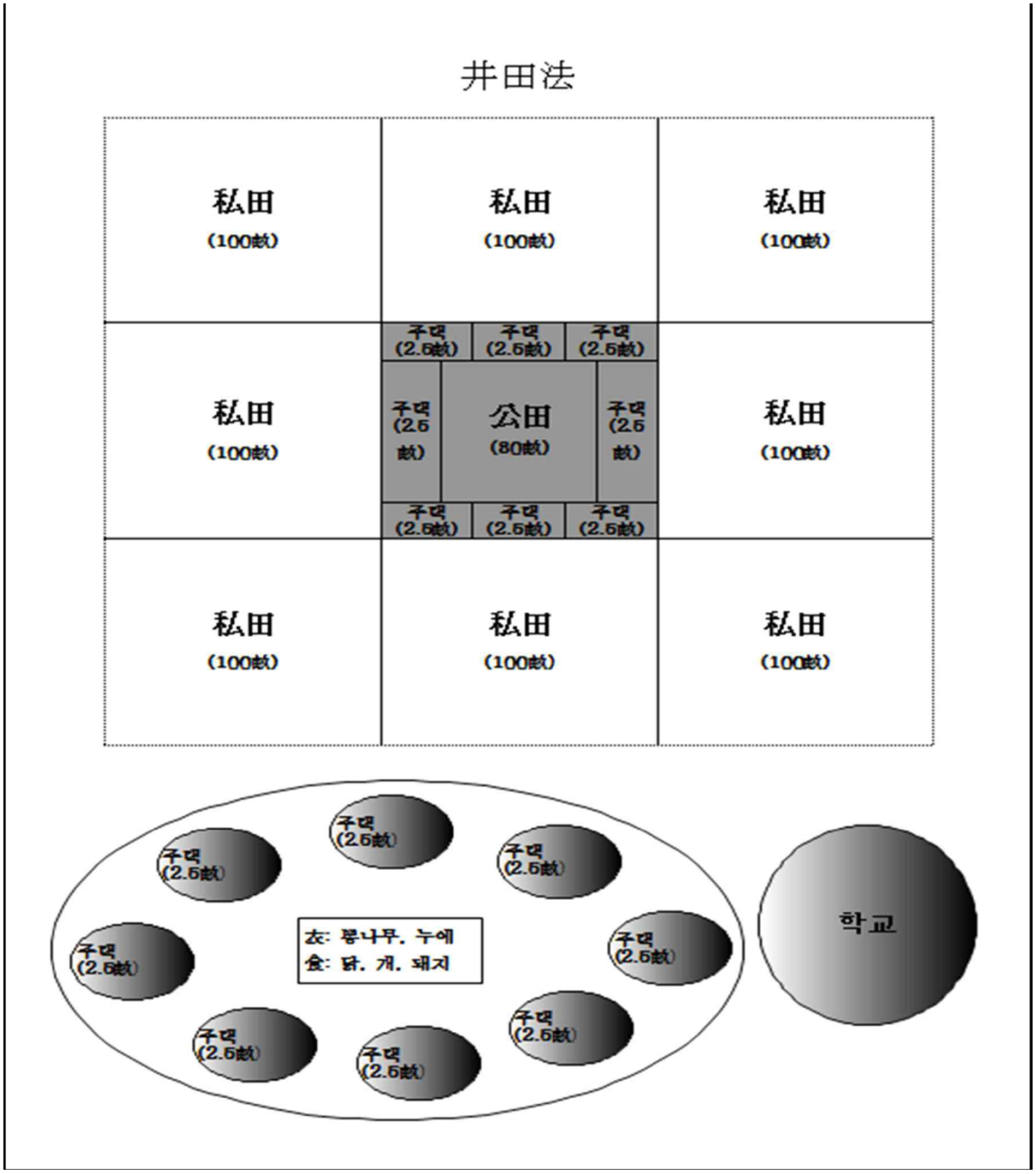
을 농사짓게만 하고 세금을 걷지 않는 천하의 농부들이 모두 기뻐하며 그런 들판에서 농사지으려 할 것이다. 상점에는 놀고먹는 세금을 없애준다면 천하의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며 그런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할 것이다. 진실로 이 다섯 가지를 능히 행하는 자라면 이웃나라의 백성들이 마치 부모처럼 우러를 것이니, 이 땅에 백성들이 생긴 이래로 그 자제들을 거느리고 가서 그 부모를 공격해서 성공한 적은 없었다. 그렇다면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는 것이고,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는 사람을 천리(天吏)라고 한다. 그러고도 '왕'이 되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
(≪맹자·공손추상≫ 중에서)

○ 孔子曰: 仁不可爲衆也. 夫國君好仁, 天下無敵. 今也欲無敵於天下而不以仁, 是
猶執熱而不以濯也. 詩云, 誰能執熱, 逝不以濯? 」(≪孟子.離婁上≫)

【해석】
공자께서는 '인(仁) 앞에서는 숫자의 많음이 필요 없다. 임금이 인(仁)을 좋아하면 천하무적(天下無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기를 원하면서도 인(仁)을 하지 않는 것은 마치 뜨거운 물건을 잡고서도 물로 씻지 않는 것과 같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뜨거운 물건을 잡고도 얼른 물에 씻으러 가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맹자·이루상≫ 중에서)

○ 孟子曰:「子之君將行仁政, 選擇而使子, 子必勉之! 夫仁政, 必自經界始. 經界不正, 井地不均, 穀祿不平, 是故暴君汙吏必慢其經界.」(≪孟子.滕文公上≫)

【해석】
맹자가 말했다. "그대의 임금이 장차 인정(仁政)을 행하시려고 그대를 선택하여 보내셨으니, 그대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인정(仁政)이란 반드시 토지의 경계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토지의 경계가 바르지 못하면, 정전(井田)이 고르지 못하고 곡록(穀祿)이 공평하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사나운 임금이나 더러운 관리는 반드시 토지의 경계를 아무렇게나 다룹니다."
(≪맹자·등문공상≫ 중에서)



○ 梁惠王曰:「寡人之於國也. 盡心焉耳矣. 河內凶, 則移其民於河東, 移其粟於河內. 河東凶亦然. 察鄰國之政, 無如寡人之用心者. 鄰國之民不加少, 寡人之民不加多, 何也?」孟子對曰:「王好戰, 請以戰喩. 塡然鼓之, 兵刃旣接, 棄甲曳兵而走. 或百步而後止, 或五十步而後止, 以五十步笑百步, 則何如?」曰:「不可, 直不百步耳, 是亦走也.」曰:「王如知此, 則無望民之多於鄰國也. 不違農時, 穀不可勝食也, 數罟不入洿池, 魚鼈不可勝食也, 斧斤以時入山林, 材木不可勝用也. 穀與魚鼈不可勝食, 材木不

可勝用, 是使民養生喪死無憾也. 養生喪死無憾, 王道之始也. 五畝之宅, 樹之以桑, 五十者可以衣帛矣. 雞豚狗彘之畜, 無失其時, 七十者可以食肉矣. 百畝之田, 勿奪其時, 數口之家可以無飢矣. 謹庠序之敎, 申之以孝悌之義, 頒白者不負戴於道路矣. 七十者衣帛食肉, 黎民不飢不寒, 然而不王者, 未之有也. 狗彘食人食而不知檢, 塗有餓莩而不知發, 人死則曰: '非我也, 歲也.' 是何異於刺人而殺之, 曰: '非我也, 兵也.' 王無罪歲, 斯天下之民至焉.」(≪孟子.梁惠王上≫)

【해석】
양혜왕이 말했다. "과인이 나라에 마음을 다하였습니다. 하내에 흉년이 들면 그곳 백성들을 하동으로 옮기고, 하동의 곡식을 하내로 옮겼습니다. 하동이 흉년이 들었을 때도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이웃나라의 정치를 살펴보면 과인처럼 마음을 쓰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웃나라의 백성이 더 줄지 않고, 과인의 백성이 더 늘지 않는 것은 왜입니까?"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니 전쟁으로 비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북을 울려 양쪽이 칼날을 맞부딪히다가, 한쪽이 갑옷을 버리고 무기를 끌며 도망을 칩니다. 어떤 이는 100보를 도망간 뒤에 멈추고, 어떤 이는 50보를 도망간 뒤에 멈춥니다. 50보로 100보를 비웃는다면 어떻습니까?"
왕이 말했다. "불가합니다. 100보가 아닐지라도 이 또한 도망간 것입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왕께서 이를 아신다면, 이웃나라보다 백성이 많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 농사 때를 어기지 않으면 곡식은 이루다 먹을 수 없고, 촘촘한 그물을 웅덩이에 들이지 않으면 물고기는 이루다 먹을 수 없으며, 도끼를 정해진 때에만 산림에 들이면 재목은 이루다 쓸 수 없을 것입니다. 곡식과 물고기를 이루다 먹을 수 없고, 재목을 이루다 쓸 수 없다면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분을 봉양하고 돌아가신 분의 상을 치르는 데 유감이 없게 하는 것이며, 살아계신 분을 봉양하고 돌아가신 분의 상을 치르는 데 유감이 없게 하는 것이 '왕도(王道)'의 시작입니다.

㉯5묘의 집에 뽕나무를 심으면 50대가 비단옷을 입을 수 있고, 닭.돼지.개 등 가축의 번식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70대가 고기반찬을 먹을 수 있으며, 100묘의 밭에 농사 때를 빼앗지 않으면 여러 식구의 집이 굶주림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의 가르침을 신중히 하여 효도하고 공손하는 예의를 베풀면 반백의 어른들이 길에서 이거나 지고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70대가 비단옷을 입고 고기반찬을 먹으며,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추위에 떨지 않는다면, 그러고도 왕이 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개와 돼지가 사람이 먹어야 할 것을 먹는데도 단속할 줄 모르고, 길바닥에 굶어죽은 시체가 있는데도 곳간을 열 줄 모르면서, 사람이 죽으면 한다는 소리가 '나 때문이 아니라, 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람을 찔러 죽여 놓고서 한다는 소리가 '나 때문이 아니라, 칼 때문'이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왕께서 해를 탓함이 없으시면 천하의 백성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맹자·양혜왕상≫ 중에서)

○ 戴盈之曰:「什一, 去關市之征, 今玆未能, 請輕之, 以待來年, 然後已, 何如?」孟子曰:「今有人日攘其鄰之雞者, 或告之曰: 是非君子之道. 曰: 請損之,
月攘一雞,
以待來年, 然後已. 如知其非義, 斯速已矣, 何待來年?」(≪孟子.滕文公下≫)

【해석】
대영지(戴盈之: 송나라 대부)가 말했다. "세금을 소득의 10분의 1만 걷고 관문과 시장의 세금을 없애는 것은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없으니, 지금까지보다는 가볍게 하다가 내년에 가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여기 날마다 이웃집 닭을 훔치는 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누군가가 그에게 '이는 군자의 길이 아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럼 지금까지보다는 줄여서 한 달에 한 마리씩만 훔치다가 내년에 가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한 셈이비다. 그것이 의(義)가 아닌 줄 알았다면 속히 그만두어야지 어찌 내년을 기다린단 말입니까?"
(≪맹자·등문공하≫ 중에서)

○「齊人有言曰: 雖有智慧, 不如乘勢, 雖有鎡基, 不如待時. 今時則易然也. 夏后、殷、周之盛, 地未有過千里者也, 而齊有其地矣, 雞鳴狗吠相聞, 而達乎四境, 而齊有其民矣. 地不改辟矣, 民不改聚矣, 行仁政而王, 莫之能禦也. 且王者之不作, 未有疏於此時者也, 民之憔悴於虐政, 未有甚於此時者也. 飢者易爲食, 渴者易爲飮. 孔子曰: 德之流行, 速於置郵而傳命. 當今之時, 萬乘之國行仁政, 民之悅之, 猶解倒懸也. 故事半古之人, 功必倍之, 惟此時爲然.」(≪孟子.公孫丑上≫)

【해석】
제(齊)나라 말에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세(勢)를 타는 것만 못하고, 아무리 좋은 쟁기가 있어도 때를 기다리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쉽게 되는 때입니다. 하(夏)나라, 은(殷)나라, 주(周)나라가 융성했을 때에는 영토가 천리를 넘는 경우가 없었지만 제(齊)나라는 그런 영토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 닭 울음과 개 짖는 소리가 사방 국경에까지 들릴 만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영토를 더 늘릴 필요도 없고 백성을 더 모을 필요도 없이 인정을 행하기만 하면 왕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왕'이 나오지 않은 것이 지금보다 드문 적이 없었으며,

백성들이 학정(虐政)에 힘들어 한 것이 지금보다 더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굶주린 자에게는 변변찮은 것도 먹을거리가 되고, 목마른 자에게는 하찮은 것도 마실거리가 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덕(德)이 흘러가는 것은 역마로 명을 전하는 것보다 빠르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만승(萬乘)의 나라가 인정(仁政)을 행한다면 백성들은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풀려난 것처럼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일은 옛 사람의 절반인데 그 공은 필시 배가 되는 것은 오직 이때만 그러합니다.
(≪맹자·공손추상≫ 중에서)

○ 梁惠王曰:「晉國, 天下莫强焉, 叟之所知也. 及寡人之身, 東敗於齊, 長子死焉, 西喪地於秦七百里, 南辱於楚. 寡人恥之, 願比死者壹洒之, 如之何則可?」 孟子對曰: 「地方百里而可以王. 王如施仁政於民, 省刑罰, 薄稅斂, 深耕易耨, 壯者以暇日修其孝悌忠信, 入以事其父兄, 出以事其長上, 可使制梃以撻秦楚之堅甲利兵矣. 彼奪其民時, 使不得耕耨以養其父母. 父母凍餓, 兄弟妻子離散. 彼陷溺其民, 王往而征之, 夫誰與王敵? 故曰: 仁者無敵. 王請勿疑!」(≪孟子.梁惠王上≫)

【해석】
양혜왕이 말했다. "진(晉)나라가 천하에 막강하다는 것은 어르신께서도 아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과인에 이르러 동쪽으로는 제(齊)나라에 패하여 큰아들마저 죽었고, 서쪽으로는 진(秦)나라에게 700리의 영토를 잃었고, 남쪽으로는 초(楚)나라에 치욕을 당했습니다. 과인이 이를 부끄러워하여 죽은 자들을 위해 한 번 설욕을 하려 합니다. 어찌 하면 되겠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사방 100리의 땅으로도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왕이 만일 백성들에게 인정(仁政)을 베푸시어, 형벌을 줄이시고 세금을 깎으시며, 밭을 깊게 갈고 김도 깨끗이 매게 하시며, 젊은이들이 틈나는대로 효제충신(孝悌忠信)을 수행하여 들어가서는 부형(父兄)을 섬길 줄 알고 나와서는 장상(長上)을 섬길 줄 알게 하신다면, 몽둥이를 들고도 진나라나 초나라의 견갑(堅甲:견고한 갑옷)·이병(利兵:예리한 무기)을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들은 백성의 시간을 빼앗아 밭을 갈고 김을 매 제 부모를 봉양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리하여 부모는 추위와 굶주림에 힘들어 하고 형제와 처자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들이 제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을 때 왕께서 가서 치신다면 누가 왕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자무적(仁者無敵)'이라 하였으니, 왕께서는 의심치 마소서."
(≪맹자·양혜왕상≫ 중에서)

○ 孟子曰:「仁之勝不仁也, 猶水勝火. 今之爲仁者, 猶以一杯水救一車薪之火也, 不熄, 則謂之水不勝火, 此又與於不仁之甚者也, 亦終必亡而已矣.」(≪孟子.告子上≫)

【해석】
맹자가 말했다. "인(仁)이 불인(不仁)을 이기는 것은 마치 물이 불을 이기는 것과 같다. 하지만 요즘의 인(仁)을 한다는 자들은 마치 한 잔의 물로 수레 가득 실은 섶의 불을 끄려다가 끄지 못하면 '물은 불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더구나 이는 불인(不仁)에 매우 힘을 실어 주게 되니, 결국은 반드시 멸망하고야 말 것이다."
(≪맹자·고자상≫ 중에서)
○ 孟子曰:「以善服人者, 未有能服人者也, 以善養人, 然後能服天下. 天下不心服而王者, 未之有也.」(≪孟子.離婁下≫)

【해석】
맹자가 말했다. "선(善)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려 해서는 사람을 복종시킬 수 없다. 선(善)으로 사

람을 기르려 한 다음에야 능히 천하를 복종시킬 수 있다. 천하에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고 '왕'이 된 경우는 없다."
(≪맹자·이루하≫ 중에서)

○ 孟子曰:「仁則榮, 不仁則辱, 今惡辱而居不仁, 是猶惡濕而居下也.」(≪孟子.公孫丑上≫)

【해석】
맹자가 말했다. "인(仁)하면 영화롭고, 불인(不仁)하면 치욕스럽다. 이제 치욕은 싫어하면서도 불인(不仁)에 머물고 있으니, 이는 마치 습한 데를 싫어하면서도 낮은 곳에 머무는 것과 같다."
(≪맹자·공손추상≫ 중에서)